

능동형 자동 보안 솔루션 '눈길'

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업체 포티넷 코리아(지사장 김종덕)는 포티넷은 포티가드(FortiGuard)의 능동형 자동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포티게이트(FortiGate™) 및 포티메일(FortiMail™)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더욱 강화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.

포티넷 코리아에 따르면 포티넷 보안 가입자들은 포티가드(FortiGuard™)의 능동형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네트워크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 없이 포티넷 시스템의 최신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다.

포티가드는 4개의 상호보완적인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치 않는 악성 네트워크 트래픽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해준다. 또 최신 바이러스, 웜, 트로이 목마, 스파이웨어, 기타 보안 위협 등을 철저히 차단해 준다.

최근 포티가드 웹 필터링 가입자형 서비스를 도입한 맥 노튼 캐나다 레스브리지 대학 전산 관리자는 "외부 접속을 통한 네트워크 공격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, 인터넷 사용 중 다운로드

를 통해 침투하는 악성 트래픽 및 비허가 콘텐츠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 솔루션이 필요했었

포티넷, 포티가드 서비스 제공 바이러스, 스파이웨어 등 차단



다"며 "여러 보안 업체의 기술을 검토해 본 결과, 네트워크 성능, 가격 경쟁력 등에서 우수하고 종합적인 보안 기능까지 갖춘 포티게이트-500 시스템의 포티가드 웹 필터링 가입자형 서비스를 선택하게 됐다"고 덧붙였다.

아울러 포티넷은 포티가드 가입자형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티바이러스, IPS, 웹 필터링, 안티스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구정은 기자